

‘삼현삼죽’ 궁중 음악을 연주하다

역사 속 궁중 음악을 다채로운 악기의 음색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삼현삼죽’ 무대가 12월 3일 오후 3시 광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우리네 음악 향악은 오래 전 통일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악이다.

향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3개의 현악기와 3개의 관악기로 연주한다하여 삼현삼죽(三絃三竹)이라 불리웠다. 삼현으로는 비파와 가야금, 거문고를 칭하고 삼죽으로는 대금과 중금, 소금이라 일컫는다. 이날 공연은 국악기 중 유일한 화음악기이자 대나무로 만들어진 생황·피리로 중금과 소금을 대신한다.

이날 무대에는 비파 정영범, 가야금 이송희, 거문고 김희라, 대금 김종현, 피리·생황 최유리, 해금 국재환, 타악 최성민이 오른다.

먼저 조선 중기 문인 임제가 쓴 시조 ‘복천이 맑다 커늘’을 기악 형식으로 꾸며낸 곡을 삼현삼죽을 모두 사용해 연주하며 화려하게 시작을 알린다. 다음으로 비파 독주곡 ‘침향무’를 선보이며 불교 음악 범패의 음계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원시 정서를 표현해 낸다. 이어 거문고와 대금, 타악의 합주로 ‘한갑득류 거문고 대금 병주’를 연주하며 섬세한 선율과 독창미를 선보인다.

20세기 신 경기도 민요 중 하나인 ‘오봉산 타



가야금 이송희 거문고 김희라 대금 김종현 해금 국재환

비파 정영범·피리 최유리·타악 최성민 등 무대...12월3일 전통문화관

령’도 비파와 가야금, 거문고의 합주 형태로 무대에 올린다. 아름다운 오봉산에서 보내는 하루를 묘사한 곡으로 거거리 장단의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을 만나볼 수 있다.

배우 조승우가 노래해 유명해진 사도 OST ‘꽃이 피고 지듯이’도 비파와 가야금, 생황으로 연주된다. 애처로운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야기를 무대로나마 느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추노 OST ‘비익련리’를 선보인다. 암수가 서로 눈 하나에 날개가 하나씩밖에 없

어 짝을 이루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비익조를 표현한 곡으로 가야금과 대금, 해금 연주로 애절한 울음을 전한다.

이어 금강산 절경을 표현한 ‘금강산 타령’과 동백꽃 따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동백타령’을 비파를 제외한 모든 악기를 사용해 무대에 올리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날 공연은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전석 무료. 문의 010-9415-205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톱스타보다 매니저 역할이 더 편했죠”

영화 ‘스위치’ 권상우·오정세, 인생 뒤바뀐 코미디 영화

배우 권상우와 오정세가 영화 ‘스위치’에서 허우차에 인생이 뒤바뀐 톱스타와 매니저로 변신한다.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스위치’는 크리스마스 날 자타공인 섭외 0순위 배우와 그의 오랜 친구인 매니저가 서로 인생이 바뀌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상우는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안하무인 톱배우에서 아이 돌을 둔 생계형 매니저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박강을, 오정세는 뒤처리 전문 매니저에서 사랑 빼고 모든 걸 다 가진 톱스타가 된 조운을 연기했다.

두 사람은 23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톱스타보다 매니저 역할이 더 편했죠”면서 “함께 연기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권상우는 “배우로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정세 씨가 그랬다”며 “현장에서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미묘한 표현을 연기해내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고 칭찬했다.

오정세도 “코미디 연기가 힘들다. 현장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권상우 씨가) ‘나 믿고 따라와’라는 믿음을 줘서 용기가 생겼다”며 “힘이 많이 됐다”고 화답했다.

작품을 연출한 마대운 감독은 “두 분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며 “다른 많은 분이 이 배역에 권상우, 오정세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다 톱스타일 때도, 매니저일 때도 상당히 잘 어울려서 ‘미친 조합’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케미스트리(조합)가 정말 좋았어요. 연출에 있어서 는 두 시간 동안 캐릭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똑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민정은 수현 역을 맡아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박강과 함께 톱배우의 첫사랑이자 잘나가는 유학파 아티스트에서 매니저의 아내이자 생활력 강한 미술 강사로 인생이 뒤집히는 인물이다.



영화 ‘스위치’ 주연배우 (왼쪽부터) 권상우와 오정세

이민정은 “아들 역할로 나오는 김준 배우가 저희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여서 실생활 연기를 했다”며 “나중에는 저희 아이가 ‘왜 애(김준)랑 더 재밌게 노냐’며 질투를 할 정도였다”고 촬영 뒷얘기를 전했다.

2012년 개봉작 ‘원더풀 라디오’ 이후 오랜만에 영화 출연인 그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늘 하고 싶었지만, 출산도 하고 해서 10년만 이 됐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영화이기도 하고 삶에 관해 얘기하면서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장르여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박강과 수현의 아들을 연기한 아역배우 김준이 깜짝 방문해 무대에 올랐다. 극 중 가족 간 연기 호흡을 “100만 점”이라고 평가한 그는 “아빠(권상우)가 팔에 매달리게 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2022년 문화전당 건립 기록전 아카이브실서 상설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10여 년간의 건립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상설전시사가 마련됐다.

ACC 개관 7주년을 기념해 전당 건립 기록 전시 ‘빛의 숲(Forest of Light)’을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건립 아카이브실에서 상설 운영한다.

전시에선 설계 과정에서 제작한 축적 1:100의 대형 건축물 모형을 비롯해 건립 기록 사진, 설계 스케치, 건축모형 등 우규승 건축가가 기증한 문화전당 설계 기록 일부 등을 선보인다.

개막 첫 프로그램으로는 전남대 건축학과 유우상 교수가 진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

축이야기’ 강연이 마련됐다.

한편 ACC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빛의 숲(Forest of Light)’으로 건립됐다. ‘빛의 숲’은 역사적 배경이 되는 기존 건물을 중심으로 두고 주요 시설은 지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시설의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에는 정육면체의 채광창을 뒀다. 설치된 채광창은 낮에 자연광을 건물 내부로 유입시키고, 밤에는 공원을 밝히며 색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 성평등의제네트워크 지역 워크숍’

광주지속가능발전가능협의회, 24~25일 여성가족재단 북카페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4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이틀간 광주여성가족재단 3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오후 3시부터 ‘2022년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광주여성민우회,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외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함께한다.

‘연대할수록 강해지는 우리, 꽃피우는 성평등’

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전 영역에 걸친 성평등의 연결고리와 확장성과 연계된 방향성을 짚는다.

먼저 주제발표로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SDGs를 횡단하는 성평등’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1948),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등의 흐름을 통해 도출된 UN SDGs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지현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 대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운영의 성인지성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및 결과를 도출 할 경우 성인지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성평등현안발표에서는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2022년 성평등이슈와 이후의 사회 상상하기’ 발표를 통해 현재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정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장의 ‘광주여성생애구술사연구와 그 의미’ 발표로 광주 여성사 작업의 의의와 2021년 방직공장 노동자 생애구술 사례를 공유한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광주여성사 기반 체험형 역사문화콘텐츠 광주여성두들길 투어를 진행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BTS ‘달려라 방탄’ 댄스 챌린지 열풍

‘#RunBTS’ 조회 수 39억건...美 빌보드 차트 재진입

그들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신곡 ‘달려라 방탄’을 이용한 댄스 챌린지가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3일 밝혔다.

‘달려라 방탄’은 6월 발매된 앨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 수록곡으로, 지난달 부산 단독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3일 안무 영상을 공개한 이후 틱톡에서 댄스 챌린지를 시작했다.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틱톡에서 ‘달려라 방탄’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 수는 이달 13일 이래 열흘

간 약 20만건이 증가해 65만건을 돌파했다. 해시태그(#) ‘RunBTS’를 사용한 콘텐츠 조회 수는 같은 기간 5억 건이 늘어 39억건을 넘겼다.

댄스 챌린지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 세븐틴의 호시, 프로미스나인의 이서연, 르세라핌, 엔하이픈의 정원-니키, 뉴진스의 민지-해린 등 하이브 소속 많은 후배 가수들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댄서 아이키, 일본 배우 아마사타 고기 등이 함께했다. 이 같은 챌린지 열풍에 힘입어 ‘달려라 방탄’은 미국 빌보드 여러 세부 차트에 재진입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